

# 전문대학 멀티미디어 관련학과의 전문화와 차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pecialized and Differentiated Education in Multimedia-related Department  
of Technology Institute

이화중(Hwa-jong, Lee)

1. 서론

2. 멀티미디어 관련학과의 교육 목표와 세부적인 방안 제시

- 2-1 철저한 기능중심의 실무교육
- 2-2 현실성과 탄력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확립
- 2-3 기능중심 교육을 위한 유급제도와 담임교수제를 위한 교수 확보
- 2-4 기자재의 현실화와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문 엔지니어의 상주

3. 멀티미디어 관련학과 전임교수의 현실과 문제해결 방안

- 3-1 전임교수 의식의 문제점과 현실에 맞는 교수의 처우
- 3-2 전임교수 초빙시의 문제점과 원천적인 해결 방안
- 3-3 교수 임용 후, 전임교수의 관리와 평가

4. 전문대학 멀티미디어 관련학과의 진정한 차별화 의미 찾기

5. 결 론

참고문헌

(要約)

95년도 부터 시작되어진 전문대학의 멀티미디어 관련학과 교육은 질적으로 내실있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멀티미디어 관련산업의 거품현상에 편승(便乘)하여 무리하게 급조(急造)된 제작 실무자를 양산(量産)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이후 현 경제 상황에서 멀티미디어 관련 인력의 과다 공급과 소비 인력의 극한 감소는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지기 위한 교육의 질적인 전문화와 차별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관련학과의 전문화와 차별화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교육목표, 특히 전임교수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方案)을 제시하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전문대학의 상황 극복 방법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문대학이 추구해야할 미래 지향적이고 사회의 요구를 앞서가는 전문대학의 위상(位相)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1995, the department of multimedia-related study was first founded in Technical Institute and has carried out the fundamental education at academic level in trial and error. Following a bubble situation of multimedia-related industries, the education of multimedia-related departments has mass-produced hurriedly prepared multimedia designers and programmers. With the current IMF economic crisis, demand for the multimedia expert manpower has shrunk drastically and competitiveness for getting a job becomes intense. Therefore, it is an urgent problem to specialize the multimedia education of Technical Institute and to differentiate it from the education of Universe.

In this paper, I am going to analyze the cause of various practical problems occurring in the multimedia education in Technical Institute and to suggest the solution and education goal for the specialized and differentiated education in multimedia-related department of Technical Institute.

(Keyword)

Education of multimedia-related department, specialization, differentiation

## 1. 서론

이 논문을 쓰기 이전에 전문대학 현장에서 학문연구와 학생들의 교육에 자신의 열과 성의를 다하는 주위의 훌륭한 교수님들께 양해(諒解)를 구하고 싶다.

90년대에 들어 전문대학 교육은 사회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擡頭)되어 왔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지만 1979년을 전문대학 교육의 시작점으로 볼 때, 만 20년이 가까워 오는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 교육의 역사는 사회의 요구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WTO 체제(體制)의 출범(出帆)으로 인한 교육시장의 개방과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다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다가올 2000년대에는 대학진학 적령(適齡)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전문대학의 위치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를 대비해 전문대학에서는 전문화 및 특성화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기존의 디자인 학과를 활성화 하거나 멀티미디어 관련학과를 신설하는 현상이 그 두드러진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굴절(屈折)된 자구책(自救)은 대학당국의 방만(放漫)한 운영으로 인한 무분별한 학과 증설과 엄청난 모집인원에 대비(對備) 실력 있는 전임교수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졸속(拙速)한 학과 운영으로 올바른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전문대학의 현실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하기에 벅찬 상황이 전개 되고있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법 제4절 전문대학 제47조(목적)에 의하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만 4년이 되어가고 있는 전문대학의 멀티미디어 관련학과 교육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미래 지향적인 안목 있는 교육정책을 가지고, 각 전문대학의 환경에 맞는 학과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여러 문제점을 제시(提示)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전임교수의 문제점과 현실을 직시(直視)하지 못하는 전문대학의 현 교육 상황에 대해 본인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앞으로 더 이상의 부실한 전문대학 멀티미디어 관련학과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 2. 멀티미디어 관련학과 교육 목표와 세부적인 방안 제시

전문대학의 교수들의 애로사항 중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가르치다보면 꼭 학원강사가 된 기본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당신은 "학원강사 보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전문대학의 교육의 목표는 개념도 아니요, 관리도 아닌 실무에서 재교육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숙달된 제작업무 능력이며, 학생들은 졸업 후 제작능력을 가진 2)중간기술자(Technician)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제11권 1호의 '영상 기초교육 방법론 ...' 을 보면 영상 기초과정을 1,2로 나누어 전문대학 1학년 1,2학기에서 영상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교육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2학년 1,2학기동안 실무에서 재교육 없이 곧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긴다. 또 전문대학의 교육을 담당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2학년 2학기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취업과 포트폴리오 제작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2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어떤 식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이 전달될 것인가를 생각해볼 때, 위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방법론이 얼마나 실험적이고 위험도가 높은지를 느낄 수 있다.

### 2-1. 철저한 기능중심의 실무교육

멀티미디어는 첨단 테크놀러지의 부산물(副産物)이라는 것을 부인(否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멀티미디어 관련 전문대학의 교육은 이론가나 몽상가를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다. 전문대학 졸업생의 사회적인 처우는 4년제 대학의 졸업생과 확연히 구분되어진다. 심지어는 봉급(俸給)의 책정(策定) 역시 전문대학 졸업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개월의 멀티미디어 관련 전문학원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 이런 실무의 현실 속에서 모 전문대학의 학교요람에서 '전문 멀티미디어 PD 육성'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멀티미디어 관련학과 교육목표를 보았다. 목표를 원대(遠大)하게 갖는 것은 무엇이 나쁘겠는가? 허나 현실은 전문대학 졸업생에게 PD 위치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대학의 교육목표가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면 전문대학의 역할 또한 허구적(虛構的)이지 않겠는가. 전문대학 멀티미디어 관련학과 교육목표는 반론(反論)의 여지없이 연구중심의 개념교육이 아닌 실무에 맞는 철저한 기능중심의 제작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문 멀티미디어 관련학원 보다 더 기능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교육과정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몇 해전 까지만 하여도 멀티미디어 관련업계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몇 종류의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다면 그것으로 취업이 가능하였다. 현재는 직원 채용시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 개념과 디자인 감각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문대학 2년 과정에서 실무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개념과 감각까지를 교육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체계적인 디자인 기초교육이 현실과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 자체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무리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이런 요구는 예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멀티미디어 관련 업종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양이 늘어나 인력공급의 과다(過多)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인 추세로, 업체에서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예전보다 용이(容易)해졌다는 이유일 것이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이런 약점은 숙달된 제작업무 능력으로 기능의 미를 최대화 한다면, 개념과 감각을 다소 중성화(中性化) 시킬 수 있는 것이 멀티미디어 관련 테크놀러지 중심 학문의 융통성이다. 짧은 수학 연한이지만,

1) 1998학년도 전국전문대학편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9, 18 1998

2) 1998학년도 전국전문대학편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9, 18

기능을 극도로 전문화 극대화 시킨다면 교육의 충분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 2-2. 현실성과 탄력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확립

취업문제는 전문대학의 절대적인 교육목표에 의한 결과 치료, 전문학원과 4년제 대학 사이에서 전문화된 차별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성패(成敗)의 관건(關鍵)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멀티미디어 관련 전문대학의 학과 교육은 전문학원과 외국 멀티미디어 관련 학과의 교육을 혼합한 것으로, 우리 현실에 부합(符合)되지 못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교육기관으로의 위상(位相)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능의 숙지(熟知)에서 갈팡질팡하는 일관성없는 목표의 설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1995년 안성에 위치한 두원공과대학(구, 두원공업전문대학)에서 처음으로 컴퓨터그래픽스과가 신설된 이래 많은 수의 전문대학에서 멀티미디어 관련학과를 신설하고 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학과의 교육장비나 외형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교육내용의 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단편적인 예로 4년 전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는 커리큘럼과 새롭게 임용된 교수의 전공에 맞추어진 일관성없는 교육 방향의 설정이 문제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졸업생이 취업 가능한 멀티미디어 관련 업계의 상황은 인터넷(WWW) 홈페이지 사업과 CD-Rom Title 사업으로 양분(兩分)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대학에서는 이런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차별화 내지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문대학의 커리큘럼이나 교육목적은 현 실무와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민감해야만 하고 탄력성있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바로 전년도 커리큘럼도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의해 옛날의 교육과정으로 과감하게 폐기될 수 있어야 하며 새롭게 임용되는 전임교수의 전공과 학교 기자재에 맞춘 커리큘럼 형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 1년을 계획하는 교육내용을 멀티미디어 산업의 동향에 맞추어 수정하고, 시간강사들이 교육할 과목의 목표와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서면화 한다면, 학과에서 이끌어 나갈 목표에 대한 오차(誤差)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강사의 교육과정까지도 언급하는 이유는 새롭게 시간강사에 채용되는 교수의 자질에 대한 경계도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업진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극히 바람직하다.

## 2-3. 기능중심 교육을 위한 유급제도와 담임교수 제도를 위한 충분한 교수 확보

1학년 2학기를 끝내는 학생은 철저한 기능 테스트를 실시하여 다음 학년의 진학을 결정한다. 이 기능 테스트는 2학년 과정을 위한 단계적 준비과정이다. 전문대학의 2학년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이 포토폴리오로 대치(代置)되는 것을 감안(勘案) 한다면, 실질적인 포토폴리오 제작에 들어가기 전, 1학년에 개인 기능활용 능력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이 기능 테스트의 탈락자 발생시 당 학과에서는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4주 정도의 특수목적 강의를 실시하며 강의 이수 후, 재 시험 결과에 의해 진급(進給)시키거나 유급(有給)을

결정한다.

그리고 학생들과 제작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의 끊임 없는 접촉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관련업무의 제작과정과 멀티미디어 관련업계의 방향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전공 시수로 반영하고, Lecture 형식을 빌어 학교에서 특강을 한 달에 2회씩은 실시해야 한다. 굳이 학교라고 장소를 지정한 것은 현재 멀티미디어 관련 업계의 인원 구성이 적게는 5명 이하 많게는 30명 정도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현장방문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신입생 때부터 현장의 긴장감을 미리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데 특강장소에 대한 의의가 있다. 이 교육은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멀티미디어 관련업계의 흐름을 쉽게 한눈에 파악하며, 자신의 진로를 확고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의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현장 실습기간은 앞으로 자신이 몸 담을 현장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느끼기보다는 얼마나 내실이 있을지 모르는 실습 회사만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에 제시한 형식의 특강은 학생들의 필수과목으로 설정되어 차별화된 성적산출이 아닌 과목 패스(Pass) 제를 도입하고 특강의 강사진은 당 학과에서 섭외(渉外)를 하지만, 특강료 문제는 담당교수의 인맥(人脈) 만으로 이루어질 성격이 아니므로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졸업작품전의 활성화와 철저한 관리, 2학년 2학기에 포토폴리오 제작을 위한 6학점 이상의 필수과목을 실시하며 졸업작품을 위한 1인 이상의 담임교수제도를 실시한다. 멀티미디어 관련학과 뿐 아니라 디자인 관련 학과들은 2학년 2학기에 학생들의 졸업작품전 및 포토폴리오 준비 때문에 수업 조차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졸업작품전 및 포토폴리오 준비 작업은 2년 동안의 학업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인 타 학과와는 달리, 정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제도가 없는 멀티미디어 관련 업종의 취업전선에서 그 가치는 뚜렷하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6학점 이상이라는 많은 학점의 비중은 수업의 부담을 작품제작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이다. 이 준비 작업시 1인 이상의 담임교수 제도는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며, 교수들 역시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목표가 좀더 명확해질 것이다. 위의 과목에서는 졸업작품전에 앞서 전체 학과 교수대상의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작품수준을 평가한 후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졸업작품전은 학교차원의 적극적인 홍보(弘報)와 멀티미디어 관련업계의 실무 종사자와 기업의 홍보담당 실무자를 초대하는 것을 필수로 하며, 타 대학의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켜 학과의 수준을 대 내외적으로 평가 받고, 산학협동에 의한 프로젝트 디자인 유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학생 비례(比例) 더 많은 수의 교수 확보를 해야만 한다. 현재 전문대학의 3전임교수 확보율은 100개 이상의 대학이 50% 이하의 저조한 전임교수 확보율을 보이고 있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전임교수 확보율은 얼마나 되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교육해야만 할 것인가. 전문대학 학생의 학업 성취도나 정신적인 성숙도는 4년제 대학의 수준보다는 다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도 2

3) 1998학년도 전문대학평가보고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55-56 1998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은 사회로부터 4년제 대학과 비교하는 차별화된 상하(上下) 논리로 인한 정신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수(甘受)하며 학교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 전문대학 실습직원 40명 수업에 교수와 학생들과 개인적인 대화와 학업에 대한 서로의 의견 소통은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는 방법은 학생 자신이 선택하고 교수 역시 선택할 수 있는 양쪽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담임 교수제의 활용이다. 이것은 학생들과 교수간의 거리를 좁히고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을 만들고, 담당교수의 적극적인 학사관리(學士管理)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수의 전임교수의 확보가 절실하다.

#### 2-4. 기자재의 현실화와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문 엔지니어 상주

전문대학의 실습 기자재는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건 중의 하나이다. 화려한 장비환경 보다는 시기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가 다르게 진보(進歩)되어가는 하드웨어 환경에 맞추어 나가기 보다는 적절한 유지보수와 학생들의 실습실 장비 사용빈도를 높이는 것만이 부가 가치(附加價値)를 높이는 것이다. 환율 상승 전, 수입품에 의존하는 기자재는 수입가격의 현실화와 안정으로 예전 보다는 많은 비용을 소비하지 않고 구입이 가능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기자재의 고급화를 표면적으로 내세워 교육 내용 부실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장비의 효율성과 전문대학에서 교육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장비의 조건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졸업 후 학생들이 사용할 실무의 장비환경과 학교의 기자재 환경이 전혀 판이(判異)하다면 현실감 있는 현장교육이 어려울 것이다. 전문대학 졸업생의 대다수가 중 소기업의 실무에 투입되는 현실에서 하이엔드(High End) 하드웨어 환경만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자재 구성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학생들의 실습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실습실과 실습장비의 관리가 학교와 담당교수, 담당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실습실을 포함한 실습장비의 관리를 교수와 조교에게 일임하려 하고 교수의 입장에서는 관리책임은 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유지관리 문제는 불가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습실과 장비의 관리 문제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학생일 것이다. 지금 현재에도 실습실 장비관리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극단적인 예로 멀티미디어 관련학과 실습실에서 오작동되고 있는 많은 수의 컴퓨터들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실습실 기자재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한 상주(常住) 직원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직원을 상주 시키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인원의 몫은 실습 전, 완벽한 실습장비의 준비와 학생들의 기자재 사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책임감 있는 관리로 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3. 멀티미디어 관련학과 전임교수의 현실과 문제해결 방안

#### 3-1. 전임교수 의식의 문제점과 현실에 맞는 교수의 처우

전문대학의 중추(中樞)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교수는 가장 핵심적이며, 학생들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집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최악의 교육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교수들의 올바른 마인드(Mind)와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투철한 교육의식만 존재 한다면, 전문대학 소규모의 교육목표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교수의 의식 개혁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교수의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전문대학 교수들이 전문대학을 정규대학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 또는 사회적으로 그럴듯하고 편하고 안정된 직업 정도로 생각하는 심각한 이기주의적인 의식에서 문제는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나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교육관이나 확고한 신념 없이 예전에 자신이 배워왔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능동적이지 못한 면학의식을 탓하고 있다. 교육장비의 빈곤함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는 교육환경만을 탓하는, 일종의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식의 이기주의의 만연(蔓延)에서 시작된다. 대학 임용(任用)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나름의 회의적인, 전문대학 교수라는 명패(名牌)에 자의(自意) 하는 태도에서 짧은 교육기간 2년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기만(欺騙)하는 결과를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수의 의식과 자질 문제는 금기시 되어왔던 예전에 비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문제의 심각성이나 개선의 필요성은 선뜻 이슈(Issue)화 되지않고 있다. 이런 전임교수의 의식과 자질문제는 임용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3-2에서 제시) 대학 당국에서 제시하고 시사하여 원천(源泉)적 조정을 필요로 한다.

또 전문대학의 의식 있는 전임교수들의 4년제 대학으로 이직률(離職率)을 부채질하는 손꼽히는 이유로 교수 개개인의 발전에 시간을 할애(割愛)하기 용이하지 않은 이유가 앞도적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실무에 입각한 교육에 매달리다 보면 교수 자신의 발전적인 장래에 대한 회의적인 상황을 느끼게 된다. 교수 개개인의 질적인 발전이 전문대학의 발전과 근본적으로 일치하지만 기존 전문대학의 교수에 대한 행정은 교수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이기 보다는, 4)책임시수를 훨씬 넘어서는 교육시간 배정과 학교의 홍보물 제작 등의 학교 행정업무에 시간을 할애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교육행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전임교수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5)교수 안식년(安息年)=연구학기제와 교수 연봉제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한가지 예로 전문적인 기능 교육을 위해, 최소 1년에 한번 정도씩 업그레이드 되는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4) 1998학년도 전문대학평가보고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58, 65-66 1998

5) 1998학년도 전문대학평가보고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58, 65-66 1998

어의 사용방법을 숙지 후 가르치기에도 쉽지않은 시간적 현실에서 교수의 좋은 작품활동이나 연구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Irony)가 아닐 수 없다. 일정기간 동안 학생교육에 모든 것을 할애한 교수에게 한 학기 정도의 연구학기제를 보장하는 제도는 교수 개개인의 자기 발전과 학교전체의 교수자질의 개선을 보장해 주는 아주 기본적인 배려(配慮)일 것이다. 교수들의 호봉제는 급여의 책정은 학교 재직 연수와 비례한다는 공식을 성립시켜 교수의 시간때우기 식의 안일 무사한 의식을 부채질 한다. 교수 재임용제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병행(並行)되어야 할 이 제도는 실적위주의 가시적인 평가 보다는 3-3에서 제시하는 여러 평가방법을 통한 총체적인 평가방법을 실시 하여야 한다. 교수 자신만의 연구 활동보다는, 학생교육과 학문연구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 3-2. 전임교수 초빙시의 문제점과 원천적인 해결 방안

현재 많은 수의 전문대학 멀티미디어 관련학과의 교수는 외국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귀국한 학위 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멀티미디어 관련 학문자체가 학문으로 정립(鼎立)된지 오래되지 않은 현실에서, 외국에서 2년 내지는 3년 정도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한 그들에게, 전문대학의 교육은 많은 이질감(異質感)을 주고, 우리 나라의 멀티미디어 현장 실무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의 제작실무를 강의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기준으로 학위를 가지고 2-3년 정도를 근무한 경력자들은 대리급 이상 과장급의 위치를 점유(占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직급은 'PD(Production Director)' 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순수제작 보다는 제작관리 중심의 전체적인(외주 업체의 관리 포함)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다.

요사이 현장실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대학에서는 교수 초빙시 현장실무 경험을 2~3년 가지고 있는 학위자를 모집하는 교수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대기업에서 대리급 이상 과장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작도 아닌 기획이나 제작관리와 외주 관리를 주로 담당하던 PD 직급 이상의 실무자가, 직급상으로 보아도 얼마나 실질적인 제작에 참여하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전문대학에서 요구하는 제작 현장실무를 교육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 아닌가 싶다. '현장실무 2~3년' 이라는 아이디어는 과거 교수임용 후 실무교육 중심의 수업자체가 어려운 그런 일부 선임교수들의 파행(跛行)을 겪은 학교 측의 참신한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전문대학과 실무라는 관계에서 겉보기 좀더 나은 교수들, 또 어려운 현 사회의 취업 상황에서 산업체에 근무경력이 화려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의지하려는 심리에서 발생된 현상이고 상당한 위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교수임용의 불합리성을 도출시키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한다. 교수임용 문제가 원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해진다. 다음의 몇 가지의 안에서 교수 임용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응모분야 학과에서 선출된 교수 1명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관련 전문가에 의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여 임용 분야와

응모자의 전공이 정확히 일치하는가에 대한 검증은 실시한다. 전문대학에서 이런 검증(檢證)을 위해 외부의 심사위원을 초빙하는 것을 기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 시키거나 얼굴 붉히는 것으로 여기는 풍조(風潮)가 있으나, 이것은 무엇보다 투명한 교수초빙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혹은 새로운 전공의 교수를 임용하는데 임용분야와 비슷하다는 내지는 관련 있다는 피상적(皮相的)인 이유로 기존의 교수들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응모자의 당락(當落)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겠는가.

둘째, 지원자는 앞으로 학교에 재직하는 1년동안의 교육목표와 담당 하고자하는 학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형식을 빌어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제출된 1년동안의 계획안은 임용자에 한해 학과 담당교수들과 협의 후 1년동안 시행할 것을 약속하며, 협의 된 내용에 대한 임용기간 내의 하자(瑕疪) 발생 건에 대해 재임용시 엄중히 반영(返映)한다. 이것은 전문대학에 재직 하고자 하는 교수의 교육의식과 자신이 수행할 임무에 대한 목표의식을 점검하며, 교수임용 후에 변질(變質)되는 의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이런 형식을 빌리는 이유는 교수들의 의지 변화에 의해 학생들이 피해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공개강의와 전문분야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다. 공개강의는 학교에서 임용하려는 전공분야의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 실시한다. 멀티미디어 관련산업의 전문적인 상식과 컴퓨터 시스템 구조의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얼마나 현실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질문한다.

넷째, 임용 후 자신의 개인사업을 포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임교수의 개인사업은 학교와 학생의 입장에서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교수의 능동적인 실무 활동에 의해 학생들에게 좀더 실무에 가까운 교육환경이 구축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취업환경 구축이 쉬워지는 것이 교수의 개인사업 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취업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개인사업과 왕성한 교수 개인의 작업활동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교수 자신의 사업에 투자되는 시간과 학생들에게 소요하는 시간의 감가상각(減價償却)을 생각해 본다면 학생들의 교육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런류의 목적은 학생의 입장에서 전임교수 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형식의 교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학벌과 학력이 파괴된 그 분야의 확실한 전문인을 채용하는 겸임교수 제도나 시간강사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학생들의 실무와 취업환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실무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2년 이상의 전문대학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않는 지원자는 교수초빙에서 제외한다.

실무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대학 교육은 요사이 교수 초빙시 실무 경험자를 우선으로 우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교수의 실무능력과 실무교육 능력은 별개로 구분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에서 시간강의를 처음 경험한 사람은 한동안 본인이 기존에 생각했던 전문대학의 교육환경과 전문대학 학생 수준에 대한 이견(異見)의 폭을 줄이기 어려워한다. 뛰어난 디자인 행위 능력과 학생교육은 엄격히 다르다. 출

를한 디자이너가 꼭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 없듯이 오히려 위에서 이야기한 이전의 차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단기간 내에 줄여 자신만의 교육 노하우를 개발 하느냐가 중요하다. 학생의 수준과 학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실무에 대한 나열식 교육은 사실학원이나 네번째 안(案)에서 이야기한 겸임, 시간 강사의 채용으로 가능하지만, 전임교수의 차원에서는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일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의 강의경험이 없는 응모자는 교수초빙에서 제외하여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수 인턴제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교수임용 체계를 확립하고, 외부 인원을 투여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하여도 짧은 시간 동안의 면접심사와 서류상의 심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요사이 각 대학에서는 교수임용의 제안을 2년 계약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전문대학에서 2년 후 재계약에서 탈락하는 교수들의 발생률은 극히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상하구조가 뚜렷하고 상벌의 체계가 분명하지만 우리의 정서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은 교수의 재임용에 상당히 관대한 점을 보이고 있다. 한번 임용된 교수를 2년 후의 재임용에서 탈락 시키겠다는 생각은 2년의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과는 일치해서는 않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면접시 임용인원의 2배 수 혹은 3배 수의 인원을 뽑아 1년 계약 교수인턴으로 기용하여 그들에게 1년 기회를 주어 교육과 학교에 대한 적응 시간, 자신의 교육관 재정립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임용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3-3. 교수 임용 후, 전임교수의 관리와 평가

적합한 교수 초빙은 전문대학 교육의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빙 심사절차나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교수임용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임용 후의 교수의 관리 또한 학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차지한다. 임용 후 일부 교수들의 무사안일(無事安逸)식 학생교육의 태도들을 교수 개인의 인격적인 측면이 아닌 제도적 체계에서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현실 또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적인 형태는 교수자신의 자기발전과 자발적인 의식구조 개선으로, 교수직은 평생 직장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의 구조에서 볼 때 교수의 위치는 신성시 되어있는 불가침(不可侵)의 위치로 대변될 것이다. 가시화 되지 않는 사고만 없다면, 물 흐르듯 위치를 고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와는 거리가 먼, 흐름을 역행하는 태도일 것이다. 아래 네가지의 항목들은 교수의 관리 차원을 넘어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교수의 위상을 만들기 위한 검증(檢證)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과목당 정교한 교재(教材) 개발을 의무화 한다.

교재 개발은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 성격을 가지고 담당교수에게 요구하지만, 형식적으로 한번 만들어진 교재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보충하거나 발전되고 있지않은 형편이다. 학과의 성격상 1년 이상의 생명력을 갖는 교재가 존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피나 외형상의 포맷을 두지않고 매학기 수정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교재를 뒷받침하는 시청각 교재, 수업

시간의 실기교육 내용을 설명하는 Tutorial 형식의 샘플 개발은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매 학기 2주에 하나 이상의 과제(課題)를 제출하고 과제에 대한 평가는 수업 중 강의평가 외에 서면(書面)으로 학생에게 통보한다.

작업 중 기획과 제작의 순수한 오차(誤差)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다방면의 간접경험(선배나 혹은 교수의 도움)과 자신만의 직접경험(採得)으로 얻을 수 있다. 학창시절 다양한 종류의 과제진행 교육은 자신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기획과 제작에서 일치하지 않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다. 과다하다고 표현될 정도의 과제량은 Output의 질적인 수준향상과 톨의 기능 숙지에도 도움이 된다. 수업시간 학생개인에게 주어지는 몇 분의 평가와 평가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는 학생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학생의 과제 결과물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나 성의를 넘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는 교육이 아닌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한 대처안을 학생에게 이해 시키기 위한 눈높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하는 서면을 통한 재 평가는 수업 중 교수평가시 교수의 의도를 학생본인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을 최소화 하자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셋째, 매 학기 2회(중간,학기말고사기간)에 걸쳐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결정할 세부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진 학생자치의 교수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결과는 학교장에게 학생대표가 직접 보고한다.

현재 많은 수의 전문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시기적(時期的)으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내용면과 결과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전문대학에 재직시 학교에서 일정하게 치루어지는 교수 강의평가는 학생의 입장이 아닌, 학교의 입장에서 외형적인 포맷만을 중요시 하였다. 학생들은 일괄적인 학교의 교수강의에 대한 평가에 중간이상 합격수준의 점수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결과이다. 외형적인 포맷을 중시하는 교수 강의평가는 특정한 ‘교수죽이기’ 나 학생과 교수간의 거리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평가결과에 대한 능동적인 입장보다는 일상적인 결과라는 무감각한 현상까지 만들어진다. 이런 점을 볼 때 학생 주도(主導)하의 학과의 학생대표 보고형식의 교수평가 실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입장에서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주도하에 평가서를 작성한 후 항목에 대한 합계를 백분율하고, 자유형식의 건의사항은 별도로 Word 작업하여 결과를 학교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학생들의 의견이 좀더 정확히 수렴(收斂) 되어있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수안식년을 이용한 논문, 작품구상 또는 새로운 교육개발의 비전 제시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학교당국에서 적합한 절차에 걸쳐 섭외(涉外)한 미공개 외부 평가위원회에 철저한 평가를 의뢰한다.

3-1에서 제시한 교수에게 주어지는 교수 연구학기제는 연구학기제 사용 후 적합한 절차의 결과측정이 수반(隨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변화되어지는 테크놀러지에 대한 막연한 연구와 새로운 작품계획은 자칫 교육에 대한 긴장감과 열의를

부식(腐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수 연구학기제가 쉬기 위한 제도가 아닌 교수개인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학생 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연구를 위한 시간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위의 제시한 내용은 외부 평가위원회에 의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의해 재 임용시 엄격히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전문대학 멀티미디어 관련학과의 진정한 차별화 의미 찾기

전문대학에 관한 한가지 눈에 띄는 현 교육부 정책으로 해당 전문대학 의지에 따라 '대학이름의 자유화'와 '학제(學制)의 연장(延長)'을 허락하였다. 허나 이것은 어떤 면으로 전문대학의 특성화나 전문화를 더욱 말소(抹消)시키는 정책이 아닌 듯 싶다.

현재 전국에 158개의 전문대학들 중 122개의 전문대학이 교명(校名)을 변경한 상태이다.<sup>6)</sup> '전문' 호칭의 사회적인 이질감은 사회적인 인식도와 실력보다는 학벌 우선주의의 국민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학교이름에서 빼어낸다 하여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지금까지 내용에서 평가받기 보다는, 2년제와 4년제의 외형적인 면에서부터 차별화되어 왔다는 극히 원초적인 피해의식의 발상(發想)이다. 이것들은 질적으로 내실화되지 못한 전문대학의 교육을 조금이나마 상쇄(相殺)해보자는 졸속행정에서 기인(基因)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으로 남아있을 때만이 그 나름의 존재가치(存在價値)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전문대학이 학제의 연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학제 연장의 손꼽는 이유로 약간의 시간만 더 있었다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일 것이다. 그렇다면 2년제 전문대학의 학제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현 국가의 경제사정이 아니라면 많은 학교들이 앞을 다투어 학제의 연장을 내세웠으리라 생각해 본다면,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는 아쉬운 교육을 하여도 된다는 말인가? 전문대학의 2년 4학기 제도는 4년제 대학의 8학기 제도보다 얼마나 매력적인 제도인가를 생각해 보자. 사회의 실무와 일치하는 교육으로 졸업과 동시에 재교육 없이 곧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육은 디자인 개념이나 감각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4년제 정규 과정의 대학에서 이를 수 없는 많은 이점(利點)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학비 역시 4년제 대학보다도 저렴하며, 짧은 시간에 많은 이수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능력 여하에 따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학제가 연장된다면 그로인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게 되며, 그 학비의 부담이 사회적인 학벌위주의 차별까지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이점(利點)과 명분(名分)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다. 이런 식의 4년제 따라 하기는 더욱 전문대학의 사회적인 위치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6) 1998학년도 전국전문대학편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p358, 1998

#### 5. 결 론

WTO 체제(體制)의 출범(出帆)과 앞으로 다가올 2000년도의 입학 적령기의 인구감소로 전문대학 뿐 아닌 4년제 대학에서도 양질의 학생을 입학시키려는 자구책으로 현실적인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상황이 이런데 전문대학에서는 이런 현실과 문제점을 가장 피부로 빠르게 느끼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예전의 4년제 대학입시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진 불합격생은 수용하는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좀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내실있는 전문대학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 경제 상황은 구조의 조정과 사회의 통념(通念)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문대학은 '틈새 교육'이 존재한다. 이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의 틈새이며, 이 틈새 교육은 그것만의 틈새 시장을 만들고 있다. 요사이 유행어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곤 한다 이것은 작은 개념의 차이가 많은 것을 바꾼다는 말일 것이다. 대학이라는 타이틀 아래 전문대학은 자신들의 의지와 현실에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의 축소판(縮小版)이길 원하고 있는 듯 하다. 4년제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2년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굳이 2년 이상의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를 하며 4년제 대학과정에 진학하려 하겠는가. 전문대학은 그 틈새에서 전문대학만이 이를 수 있는 양질의 인력 시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야만 한다. 다시 말해 사회가 필요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인력을 수용하기를 기다리기 보다 전문대학이 그들의 인력 수요의 창출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사회적인 요구를 앞서 나가 전문대학 스스로 인식을 바꾸어 능동적인 차별화와 전문화에 성공한다면 이 어려움이 더 큰 호기(好機)를 가져다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전문대학 교육의 기능중심 교육과 교수들의 현재의 위치와 위상 정립에 포커스를 맞추어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으며, 멀티미디어 관련학과의 학과 자체를 위한 차별화와 특성화는 본 논문에서는 좀더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커리큘럼이나 실습기자재의 샘플 등. 그러나 1년 후의 커리큘럼의 표준안을 장담하기 어려운 빠르게 변모하는 멀티미디어 환경과 시점에서 특히 전문대학의 교육 특성상 개념적인 교육보다는 실무교육 중심의 교육에서 어떤 모범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여러 제안을 당 대학의 형편에 맞추어 수렴한다 할지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여러 제안들 중 많은 양이 전문대학 교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개혁이 아닌 보수(補修)이며 교수와 학교당국이 합심하여 올바른 교육관을 확립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문화와 차별화만이 전문대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지않는, 교수 개개인의 올바른 교육개념의 정립과 학생들을 위한 희생정신이 바탕이되어 빠른속도로 변모하는 멀티미디어 실무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실무교육을 해야만 한다. 둘째, 대학당국은 4년제 따라하기가 아닌 예산과 학생 정원만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요구를 앞서 가는 학생 최우선의 전문대학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



야 한다. 많은 수의 내실 없는 졸업생을 양산(量産) 하기보다는 소수의 전문화와 차별화된 학생 배출에 정진(精進)해야만 미래 지향적인 전문대학의 위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문대학의 존립자체가 위협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제 98-3호: 1998학년도 전국 전문대학 편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8.7
- 원경아, 영상 기초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제11권, 제1호, 1998.5
- 연구보고 제36집: 21세기 전문대학 정원의 합리적 수급조정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8.4
- 자료 제98-1호: 1997학년도 전문대학평가보고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8.3
- 부록1 98학년도 고등교육법 동법시행령, 교육부, 1998.3